

서론

타인의 의도(intention)를 파악하는 것은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이다.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저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라는 말을 하기도 듣기도 한다.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철수가 사회주의를 원하고(욕망, desire),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우월한 체계라는 신념(belief)¹⁾이 있다면, 철수는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의도가 있다’는 판단(intention judgment, 이하 의도 판단)과 ‘행동이 의도적이다’라는 판단(intentional action judgment or intentionality judgment, 이하 의도적 행동 판단)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²⁾. 앞선 예에서 철수가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해서 철수의 모든 행동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의도 판단과 의도적 행동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사람들은 두 판단들을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Malle & Knobe, 1997). 대부분의 의도적 행위 모형에 대한 연구들 역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두 판단은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개괄을 위해서는 Malle와 Knobe(1997)을 보면 된다).

Knobe(2003a, 2003b, 2004)의 부수적-결과 효

- 1) desire와 belief의 번역은 한국심리학회가 제공하는 심리학용어사전 (<http://www.koreanpsychology.or.kr/psychology/glossary.asp>)을 따랐다
- 2) 의도 판단과 의도적 행동 판단의 구분은 이론적 배경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과(side-effect effect)는 ‘의도 판단’과 ‘의도적 행동 판단’의 일관성을 부정한다는 면에서 실험 철학 및 인지심리학 분야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부수적-결과 효과(Knobe, 2003a)에 따르면, 행동의 결과가 도덕적으로 긍정적/부정적인지 여부가 의도적 행동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의도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Knobe(2004)은 도덕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일으킨 행위자를 비난하고자 하는 평가적 고려가 행동에 대한 판단, 즉 의도적 행동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행위자의 마음에 대한 판단, 즉 의도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부수적-결과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부수적-결과 효과의 심리적 타당성(psychological validity)을 인정하고 있다(Knobe, 2010). Knobe(2006)은 부수적-결과 효과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실제적 현상이며, 후속 연구는 결과의 도덕적 성격이 의도적 행동 판단 외에 다양한 사회적 판단과 추론에 미치는 영향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걸음 더 나아가 Knobe와 Burra(2006)는 부수적-결과 효과가 문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최근 도덕성과 관련된 판단의 양상이 문화특수적일 수 있다는 증거들이 보고되고 있다(Chiu Loke, Heyman, Itakura, Toriyama, & Lee, 2014; Gold, Colman, & Pulford, 2014; Han, Glover, & Jeong, 2014). Gold 등(2014)은 영국인과 중국인에게 트롤리 문제와 같은 윤리적 딜레마 문제를 제시하고 두 문화권 참여자의 의무론적 도덕 판단(deontological moral reasoning)과 공리주의적 도덕 판단(utilitarian moral reasoning) 정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중국인은 영국인에 비해 5명을 살리기 위해 한명을 희생하는 공리주의적 선택에 더 많은 반감을 보였다.

부수적-결과 효과의 문화 보편성(Knobe & Burra, 2006)은 전통적 동/서양 구분에 기반을 둔 주장이다. 하지만 인도인을 대상으로 한 Knobe과 Burra(2006)의 연구 결과가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에서도 관찰될 것이라는 가정은 검증이 필요하다. 이현진(2009)에 따르면 한국인의 의도 판단과 의도적 행동 판단은 미국인 그리고 인도인의 판단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한국인의 경우 행동의 결과가 도덕적으로 긍정적/부정적인지 여부가 의도적 행동 판단뿐만 아니라, 의도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다.

행동 결과의 도덕적 성격이 의도 판단과 의도적 행동 판단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력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타당성을 인정받아 왔다. 이러한 차별적 영향력이 관찰되지 않은 이현진(2009)의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이현진(2009)은 이 결과를 부수적-결과 효과를 지지해 주는 결과라고 해석하였지만, 이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현진(2009)은 한국인이 왜 부수적-결과 효과를 보이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의도 판단 및 의도적 행동 판단을 설명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부수적-결과 효과’ 가설 및 ‘수정된 마음-행동 일관성’ 가설을 제안하고 두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Knobe(2003a)에 따르면 결과의 도덕적 성격이 의도적 행동 판단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행위자를 칭찬 혹은 비난하기 위해서이다. ‘보다 강력한 부수적-결과 효과’ 가설은

한국인의 경우 행위자를 평가하고자 하는 요구가 의도적 행동 판단뿐만 아니라 의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안한다(박성규, 2005). ‘수정된 마음-행동 일관성’ 가설은 결과의 도덕적 성격이 행위자의 신념 및 욕망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의도 판단을 변화시킨다고 제안 한다(Adams & Steadman, 2004; Slovic, Fernbach & Ewing, 2012). 실험 1과 2에서는 부수적-결과 효과와 배치되는 결과를 보고한 이현진(2009)의 연구를 보다 통제된 실험 절차를 사용하여 반복 검증하였다. 그리고 실험 3에서 두 가설의 예측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경험적 자료가 부족한 한국인의 도덕 판단, 특히 의도 판단 및 의도적 행동 판단을 살펴봄으로서 향후 연구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 배경

의도(intention)와 의도적 행동(intentional action). 의도에 대한 판단은 마음의 상태에 대한 판단이다. 일반적으로 행위자가 특정 결과를 원하고(욕망, desire) 결과를 일으키는 행동에 대한 적절한 지식이 있다면(신념, belief), 그 행위자는 행동을 수행할 의도(intention)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된다(Astington & Gopnik, 1991; Brand, 1984; Bratman, 1987; Malle & Knobe, 1997; Wellman, 1990). 하지만 의도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Malle & Knobe, 1997). 예를 들어 철수가 영희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자. 철수가 영희를 죽이고 싶었고(욕망), 영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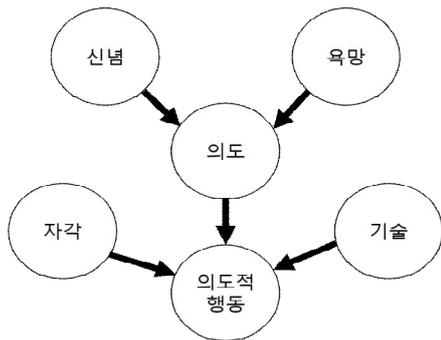
에게 총을 쏜다면 영희가 죽을 것임을 알았다(신념)고 해서, 다시 말하면 철수가 영희를 죽일 의도가 있다고 해서 그 의도가 영희를 죽이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의도가 의도적 행동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소가 필요하다(Malle & Knobe, 1997).

Malle와 Knobe(1997)에 따르면 어떤 행동이 의도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욕망, 신념, 그리고 의도 외에 자신이 특정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자각(awareness)과 결과를 이끌어낼 행동 능력 또는 기술(skill)에 달려 있다. Malle와 Knobe(1997)의 ‘의도적 행동에 대한 상식 모델(the folk concept of intentional action)’은 그림 1A에 제시하였다. 앞선 예에서 철수가 총을 소유하고 있고 총을 정확히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자신의 행동이 영희를 죽이는 행동임을 자각하고 있을 때 철수가 영희를 죽인 행동이 의도적이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1)행위자가 어떤 행동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과 (2)행동이 의도적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에 관한 것이다. 두 유형의 판단이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여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는 전자를 의도(intention) 판단, 후자를 의도적 행동(intentional action) 판단으로 표현하겠다.

마음-행동 일관성 가설. 사람들은 ‘마음이 행동을 결정한다’는 직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직관은 마음 이론(theory of mind; Gopnik & Wellman, 1992; Wellman, 1990)의 핵심 가정 중 하나이다. 마음 이론에 따르면, 의도적 행동 판단은 의도 판단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어린 동생의 얼굴에 상처를 낸 형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형의 행동이 의도적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그가 동생의 얼굴에 상처를 낼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

A. Malle와 Knobe(1997)의 의도적 행동에 대한 상식적 모델



B. Knobe(2004)의 의도적 행동에 대한 상식적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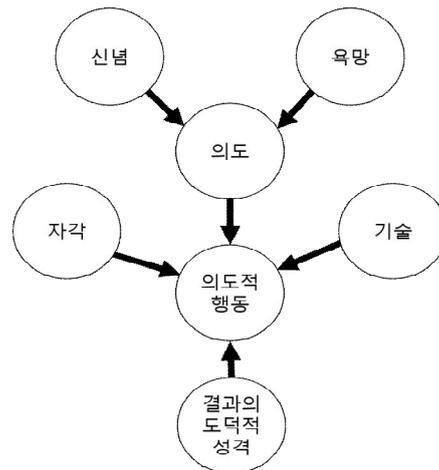


그림 1. Malle와 Knobe(1997)과 Knobe(2004)의 의도적 행동에 대한 상식적 모델

이다. 만일 형이 자신의 행동으로 동생의 얼굴에 상처가 날 것임을 알고 있었고(신념), 상처를 내길 원했다면(욕망), 형은 동생의 얼굴에 상처를 낼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마음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마음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행동에 대한 판단으로 이루어진다.

기본적 귀인 오류 역시 마음-행동 일관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본적 귀인 오류는 행동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상황의 힘을 과소평가하여 개인의 성향, 즉 개인의 마음으로 귀인하는 경향성에 의해 발생한다.

마음-행동 일관성은 Malle와 Knobe(1997)의 의도적 행동에 대한 상식적 모델에서도 관찰된다. 그림 1A에서 자각과 기술을 조건화한다면(conditionalized), 의도적 행동 판단의 유일한 근거는 의도 판단이 된다.

요약하면 의도적 행동 판단에 있어 행동을 이끈 심리적 상태, 특히 의도 판단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부수적-결과 효과(Knobe, 2003a, 2003b)가 보고되기 전까지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다(Adam, 1997; Astington, 1999, 2001).

부수적-결과 효과(The side-effect effect).

Knobe(2003a, 2003b, 2004, 2010)은 행동이 의도적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행위자의 심리적 상태뿐만 아니라 행동 결과의 도덕적 성격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그림 1B). Knobe(2003b, 2004)은 아래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행위자가 의도적으로 환경을 훼손하였는지(훼손 조건), 환경을 개선하였는지(개선 조건) 물어보았다.

[훼손 조건]

어느 회사의 부사장은 사장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현재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자사의 이익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환경을 훼손합니다.”

사장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환경을 훼손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아요. 나는 많은 이익을 얻기만 하면 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합시다.”

새로운 프로젝트는 시작되었고, 환경은 당연히 훼손되었다.

[개선 조건]

어느 회사의 부사장은 사장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현재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자사의 이익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환경을 개선합니다.”

사장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환경을 개선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아요. 나는 많은 이익을 얻기만 하면 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합시다.”

새로운 프로젝트는 시작되었고, 환경은 당연히 개선되었다.

마음-행동 일관성 가설에 따르면, 두 조건에서 사장이 부수적-결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지향은 동일하기 때문에 두 조건에서의 의도적 행동 판단은 일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조건 모두에서 사장의

일차적 목표는 회사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또한 본인의 결정으로 야기될 부수적-결과(환경 훼손 및 환경 개선)를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장은 환경이 훼손되거나 개선되는 것을 상관하지 않았다. 마음-행동 일관성 가설에 기반을 둔 Malle와 Knobe(1997)의 모형을 통해 두 조건을 살펴보면 두 조건이 동일하다는 점이 더욱 명확해진다. 두 조건에서 부수적-결과에 대한 사장의 믿음에 대한 기술과 욕망에 대한 기술은 동일하다. 또한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자각, 그리고 기술에 대한 진술 역시 동일하다.

하지만 훼손 조건의 참여자들은 사장이 환경을 의도적으로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였지만, 개선 조건의 참여자들은 사장이 환경을 의도적으로 개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Knobe(2003a, 2003b)은 이 결과를 전통적 마음-행동 일관성 가설을 반박하는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Knobe(2003a, 2003b)는 두 조건의 유일한 차이는 부수적-결과의 도덕적 성격이며, 이 차이가 의도적 행동 판단의 차이를 일으켰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에 기여한 행동을 한 사람을 칭찬하고 사회에 해악을 끼친 행동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사회적 보상 및 처벌을 제공하기 위해 의도적 행동 판단에 평가적 요소가 포함되었다는 것이 Knobe(2004)의 설명이다(그림 1B).

Adams와 Steadman(2004)은 두 조건에서 사장의 심리적 지향이 같다는 Knobe(2003b)의 가정이 틀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두 조건에서 사장의 심리상태에 대한 서술은 동일하였지만, 실험 참여자들이 '지각한 사장의 심리상태'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Adams와 Steadman

(2004)은 훼손 조건의 경우 사장은 환경을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개선 조건의 경우 사장은 환경을 개선할 의도가 없었다고 지각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만일 Adams와 Steadman(2004)의 주장이 맞다면, Knobe(2003a, 2003b)의 결과는 마음-행동 일관성 가설로 설명이 가능하다.

Knobe(2004)은 Adams와 Steadman(2004)의 주장을 검증하였다. Knobe(2004)은 전술한 훼손 조건 시나리오와 개선 조건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사장이 부수적-결과를 일으킬 의도(intention)가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Knobe(2004)의 실험 참여자는 두 조건 모두에서 '사장은 부수적-결과를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라고 판단하였다. Knobe(2004)은 의도 판단에는 앞서 언급한 평가적 요소가 개입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나쁜 생각을 가진 것만으로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서양 법철학의 논리는 마음에 대한 판단은 평가적 요소와 독립적이라는 Knobe(2004)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요약하면, 결과의 도덕적 성격은 의도적 행동 판단(Knobe, 2003a, 2003b)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의도 판단(Knobe, 2004)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Knobe(2003a)은 결과의 도덕적 성격의 차별적 영향력을 부수적-결과 효과(the side-effect effect)라고 명명하였다.

부수적-결과 효과와 문화차. Knobe과 Burra(2006)는 부수적-결과 효과가 문화 보편적이라고 주장하였다. Knobe과 Burra(2006)는 인도 사람에게 훼손 조건과 개선 조건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의도적 행동 판단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각 조건에서 사장이 부수적-결

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신념)에 대해 물어보았다. 행동 결과의 도덕적 성격은 의도적 행동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훼손 조건의 실험 참여자는 사장이 의도적으로 환경을 훼손하였다고 판단한 반면 개선 조건의 실험 참여자는 사장이 의도적으로 환경을 개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행위자의 행동 결과의 도덕적 성격은 신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두 조건 모두에서 실험 참여자들은 사장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Knobe (2003a, 2003b, 2004)의 결과와 일치한다는 면에서 부수적-결과 효과의 문화 보편성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현진(2009)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개선 조건과 훼손 조건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의도적 행동 판단과 의도 판단을 살펴보았다. 한국인의 경우 행동 결과의 도덕적 성격이 의도 판단과 의도적 행동 판단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 즉 한국인에게서는 부수적 결과 효과가 관찰되지 않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훼손 조건의 실험 참여자들은 사장은 환경을 의도적으로 훼손하였지만, 개선 조건의 실험 참여자들은 사장은 환경을 의도적으로 개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즉 의도적 행동 판단의 경우 한국인 실험 참여자의 판단은 미국인 실험 참여자(Knobe, 2003a, 2003b, 2004), 인도인 실험 참여자(Knobe & Burra, 2006)와 일관된 경향을 보인 것이다. 의도 판단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관찰되었다. 개선 조건의 실험 참여자는 사장이 환경을 개선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지만 훼손 조건의 실험

참여자는 사장이 환경을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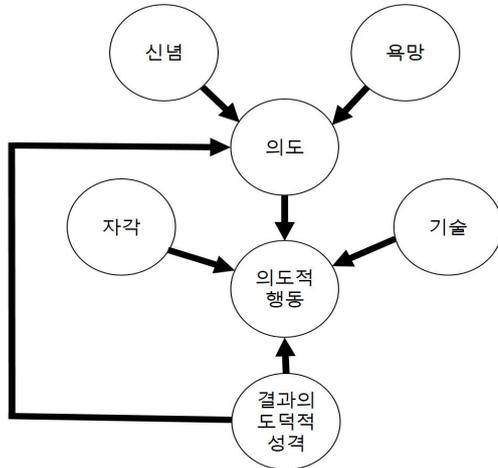
‘보다 강력한 부수적-결과 효과’ 가설 vs. ‘수정된 마음-행동 일관성’ 가설. 왜 한국인에게서는 부수적-결과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을까? 이현진(2009)은 자신의 실험 결과를 한국인에게서도 부수적-결과 효과가 반복 검증된 것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구체적 가설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국인이 부수적-결과 효과를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한 첫 번째 가능한 설명은 한국인의 경우 칭찬과 비난을 위한 평가적 요소가 행동에 대한 판단을 넘어 마음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인은 전통적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받아 왔다 (박성규, 2005). 따라서 비난 혹은 칭찬과 같은 평가적 요소가 행동의 결과뿐만 아니라 행동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한 판단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이 가설을 ‘보다 강력한 부수적-결과 효과’ 가설로 부르겠다(그림 2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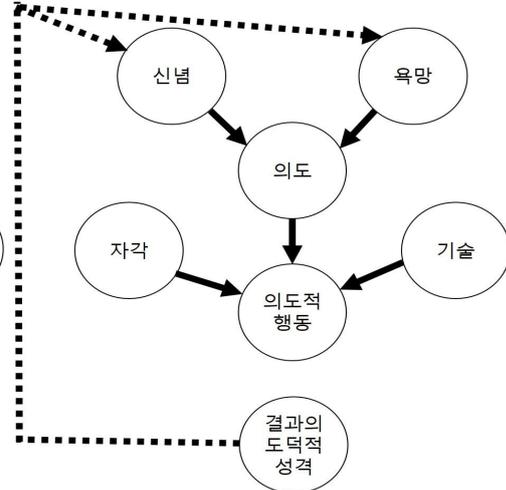
두 번째 가능한 설명은 ‘수정된 마음-행동 일관성’ 가설(그림 2B)이다. 이 가설은 결과의 도덕적 성격이 신념과 욕망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의도적 행동 판단 및 의도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비록 Knobe(2004)은 이러한 가능성이 미국인에게서 관찰되지 않았음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Knobe (2004)의 결과가 한국인에게서도 관찰될 것이라는 가정은 검증이 필요하다.

Adams와 은 개선 조건과 훼손 조건의 참여

A. '보다 강력한 부수적-효과' 가설



B. '수정된 마음-행동 일관성' 가설



접선은 결과의 도덕적 성격이 신념, 욕망, 혹은 두 구성개념 모두의 선행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

그림 2. '보다 강력한 부수적-결과 효과' 가설 및 '수정된 마음-행동 일관성' 가설의 개념적 모델.

자들이 사장의 욕망에 대해 서로 다른 표상을 가졌을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Knobe(2003a)의 훼손 조건 시나리오에서 사장은 환경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 상관없다고 말하였다. Adams와 Steadman(2004)에 따르면 이 진술은 Knobe(2003a)이 가정하는 것처럼 사장이 환경 훼손에 대해 무관심한 것으로 표상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 훼손을 원하는 것으로 표상될 가능성이 크다. 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환경 훼손을 원하는 것으로 판단될 것이라는 것이다. 반면 환경 개선을 허용한다고 해서 환경 개선을 원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Adams와 Steadman(2004)의 주장이다.

Slooman 등(2012)은 개선 조건과 훼손 조건의 참여자들이 사장의 신념에 대해 서로 다른 표상을 가졌을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Slooman 등(2012)에 따르면 의도 판단은 의도가 행동을 이끌 가장 중요한 이유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

단이지만, 의도적 행동 판단은 행동이 결과 발생에 필요조건인지에 대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환경을 훼손하는 것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사장은 환경을 해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한 반면, 사장이 환경을 훼손하고 싶지 않았다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장은 의도적으로 환경을 훼손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두 가설은 두 시나리오(훼손 vs. 개선)에서 사장의 의도 판단 및 의도적 행동 판단에 대해서는 동일한 예측을 한다: (1) 훼손 조건에서 사장은 환경을 훼손할 의도가 있었으며 의도적으로 환경을 훼손하였다고 판단될 것이다. (2) 개선 조건에서 사장은 환경을 개선할 의도가 없었으며 환경을 의도적으로 개선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것이다.

하지만 사장의 신념과 욕망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예측을 한다. ‘보다 강력한 부수적-결과 효과’ 가설에 따르면 두 조건 간 신념 판단과 욕망 판단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의도 판단의 차이는 신념과 욕망에 대한 판단의 차이가 아닌 결과의 도덕적 성격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그림 2A). 반면 ‘수정된 마음-행동 일관성’ 가설은 신념 판단과 욕망 판단에 있어 두 조건 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두 조건 간 의도 판단의 차이는 신념 판단과 욕망 판단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그림 2B). 하지만 신념 판단에서 차이가 발생할지, 욕망 판단에서 차이가 발생할지, 혹은 두 판단 모두에서 차이가 발생하느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예측은 할 수 없다.

연구 개관. ‘보다 강력한 부수적-효과’ 가설과 ‘수정된 마음-행동 일관성’ 가설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3개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모든 실험에서, 참여자들은 Knobe(2003a, 2003b)의 훼손 조건 / 개선 조건과 유사한 시나리오(부록)를 읽고 질문에 답했다. 실험 1에서는 의도 판단, 실험 2에서는 비난 및 칭찬 경험과 의도적 행동 판단의 관계 대해 살펴보았다. 실험 3에서는 행위자가 부수적-결과를 원했는지, 행위자가 부수적-결과를 일으킬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 결과를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실험 1

실험 1은 행동 결과의 도덕적 성격이 의도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현진(2009)의 결과를 반복 관찰하고자 하였다. 이현진(2009)은 Knobe(2003a)이 사용하였던 CEO 시나리오와 전투 시나리오 중 CEO 시나리오 하나만을 사용하였다. 본 실험은 두 개의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외적 타당성을 높였다. 그리고 이현진(2009)은 이메일 전송 및 답변 방식을 통해 실험을 진행하였지만 본 연구는 실험실에서 개인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현진(2009)은 결과의 도덕적 성격을 피험자간 변인으로 조작하였지만, 본 연구는 피험자내 변인으로 조작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현진(2009)은 5점 척도를 사용하여 행위자의 의도를 평정하게 하였지만, 본 연구는 Knobe(2003a, 2003b)과 같이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방법

실험 참여자 및 실험 설계. 경상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에 재학중인 56명의 학생이 자발적으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 설계는 2(부수적-결과: 긍정 vs. 부정)의 피험자 내 설계이다. 시나리오의 제시 순서는 역균형화하였다.

실험 절차 및 재료. 실험 참여자는 각 시나리오를 읽은 후 행위자의 의도를 평정하였다. 의도에 대한 평정은 농부가 환경을 개선할 / 훼손할 의도가 있었는지, 중위가 병사들을 죽일 / 살릴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 7점 척도 상에 표시하였다(0: 전혀 아니다 / 6: 완전히 그렇다).

결과 및 논의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부정적 부수적-결과에 대한 의도 판단치가 긍정적 부수적-결과에 대한 의도 판단치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시나리오(2: 전투 vs. 농부)와 부수적-결과(2: 긍정 vs. 부정)를 피험자 내 변인으로 한 2*2 피험자 내 변량 분석 결과, 부수적-결과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F(1, 55) = 94.77$, $MSE = 2.36$, $p < .001$, $\eta^2 = .63$. 시나리오의 주효과 및 부수적-결과 * 시나리오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조건별 의도 판단의 평균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실험 1의 결과는 이현진(2009)의 결과와 일관적이다. 한국인은 행위자의 의도 판단에 행동 결과의 도덕적 성격을 고려하였다. 한국인은 도덕적으로 긍정적 결과의 대해 행위자는 행동을 실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지만 도덕적으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행동을 실행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추가 분석을 위해 4이상의 평정치를 ‘의도 있음,’ 2이하인 평정치를 ‘의도 없음,’ 3인 평정치를 ‘판단 유보’로 분류하여 빈도를 계산하였다. 카이 검증 결과는 평균에 기반을 둔 분석결과와 일관적이었다. 두 시나리오 모두에

서 도덕적으로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의도가 없다고 판단한 피험자의 비율이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 비율에 비해 높았다. 반면 도덕적으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 피험자의 비율이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한 비율보다 높았다. 전투 시나리오의 경우 긍정적 부수적-결과에 대해 75%의 피험자가 의도가 없다고 판단한 반면 $\chi^2(2) = 45.46$, $p < .001$, 부정적 부수적-결과에 대해서는 14%만이 의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chi^2(2) = 24.57$, $p < .001$. 농부 시나리오의 경우, 80%의 피험자가 의도가 없다고 판단한 반면 $\chi^2(2) = 55.75$, $p < .001$, 부정적 부수적-결과에 대해서는 21%만이 의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chi^2(2) = 21.68$, $p < .001$.

실험 1의 제한점으로 실험 1의 결과가 실험 설계의 효과일 수도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험 1은 피험자 내 설계를 사용하였다. 즉 결과의 도덕적 성격의 대비에 의해 차별적인 의도 판단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McCann(2005)은 피험자 간 설계뿐만 아니라 피험자 내 설계에서도 부수적-결과 효과를 관찰하였다. 하지만 실험 설계의 효과의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피험자간 설계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실험을 실시하였다.

표 1. 실험 1에서 시나리오와 부수적-결과에 따른 의도 판단의 평균

시나리오 부수적-결과	전투	농부	합계
긍정적	1.77(0.14)	1.63(0.17)	1.70(0.13)
부정적	3.84(0.17)	3.55(0.17)	3.70(0.15)
합계	2.80(0.12)	2.59(0.13)	

() 평균의 표준 오차

경상대학교에 재학 중인 58명이 자발적으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 진행자는 학교 캠퍼스에서 학생들에게 실험 참여를 요청하였고, 참여를 수락한 학생은 실험 1에 사용한 농부 시나리오 중 부정적 부수적-결과 시나리오와 긍정적 부수적-결과 시나리오 중 하나의 시나리오를 제시받고, 농부의 의도를 평정하였다. 각 조건 당 29명이 참여하였다.

추가실험의 결과는 실험 1의 결과와 일관적이었다. 부정적 부수적-결과 조건의 참여자(평균: 2.97)의 의도 판단치가 긍정적 부수적-결과의 조건의 참여자(평균: 0.86)의 의도 판단치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t(56) = 5.42, p < .001, SE = .38, \text{Cohen's } d = 0.71$.

각 실험 참여자의 반응에 대해 실험 1에서 실시한 분류를 한 결과 부정적 부수적-결과의 경우 29명중 14명이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12명이 의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긍정적 부수의 결과의 경우 29명중 두 명만이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 반면, 26명은 의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카이 검증 결과 이러한 차이는 유의하였다, $\chi^2(2) = 15.16, p < .001$. 추가 실험의 결과는 실험 1의 결과가 피험자 내 설계에 의한 대조효과 때문이 아님을 보여 준다.

결론적으로 실험 1은 한국인의 경우 결과의 도덕적 성격이 의도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행동 결과의 도덕적 성격이 행위자의 의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미국인(Knobe, 2003a, 2003b, 2004) 및 인도인(Knobe & Burra, 2006)의 결과와 대비된다.

주목할 점은 긍정적 부수적-결과 및 부정적 부수적-결과 조건 모두에서 피험자 간 설계에

서 보고된 의도 판단의 평균이 피험자 내 설계에서 보고된 의도 판단의 평균보다 낮다는 것이다(긍정적 부수적 결과: $t(83) = 2.60, p < .05, SE = .29, \text{Cohen's } d = 0.57$ / 부정적 부수적-결과: $t(83) = 2.18, p < .05, SE = .38, \text{Cohen's } d = 0.47$).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피험자 내 설계에서는 결과의 도덕적 성격의 대비가 현저하게 관찰되며, 이러한 현저성이 의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피험자 내 설계에서 참여자는 행위자의 신념에 대한 진술과 욕망에 대한 진술이 동일하다는 점 또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만일 고전적 마음-행동 일관성 이론(그림 1A)의 가정이 맞다면 행위자의 신념 및 욕망에 대한 동일한 진술은 동일한 의도 판단을 이끌어야 한다. 하지만 실험 1의 결과는 결과의 도덕적 성격의 차이가 더 현저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험 2

부수적-결과 효과는 의도 판단과 의도적 행동 판단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의도 판단을 살펴본 실험 1의 결과만으로 한국인이 부수적-결과 효과를 보이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실험 2의 첫 번째 목표는 한국인의 의도적 행동 판단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인의 의도 및 의도적 행동 판단이 부수적-결과 효과와 부합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이현진(2009)이 사용한 의도적 행동 판단 질문의 잠재적 혼입 가능성을 통제하였다. 이현진(2009)은 의도적 행동 판단 평정을 위해 'XXX는 의도적으로 환경에 해를 끼치려고(또

는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까?’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질문은 사장의 행동이 환경에 해를 끼치려는(도움을 주려는) 목표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해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험 2에서는 Knobe(2003a)이 사용한 질문의 의미를 살려 ‘XXX는 의도적으로 환경을 개선(파괴)하였습니까?’를 사용하였다.

실험 2의 두 번째 목표는 결과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의도적 행동 판단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실험 2에서는 의도적 행동 판단과 함께 결과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하 칭찬/비난 판단)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실험 참여자는 부수적-결과(긍정적 vs. 부정적)를 일으킨 행동이 얼마나 칭찬 또는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평정하였다.

결과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의도적 행동 판단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실험 2는 의도적 행동 판단과 칭찬/비난 판단의 순서를 조작하였다. 참여자의 절반은 칭찬/비난 판단을 마친 후 의도적 행동 판단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의도적 행동 판단 후에 칭찬/비난 판단을 실시하였다.

만일 의도적 행동 판단이 도덕적 판단에 민감하다면, 순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칭찬/비난 판단 후에 이루어진 의도적 행동 판단과 칭찬/비난 판단 전에 이루어진 의도적 행동 판단이 다를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긍정적 부수적-결과에 대해서는 칭찬/비난 판단 뒤에 이루어진 행동 의도성 판단이 칭찬/비난 판단 전의 행동 의도성 판단보다 높을 것이다. 반면 부정적-부수적 결과에 대해서는 그 반대의 패턴이 예상된다.

방 법

실험 참여자. 경상대학교 재학 중인 60명의 학생이 자발적으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 설계. 2(질문 순서: 의도적 행동 판단→칭찬/비난 판단 vs. 칭찬/비난 판단→의도적 행동 판단) * 2(시나리오: 전투 vs. 농부) * 2(부수적-결과: 긍정 vs. 부정)의 3원 혼합 설계이다. 질문의 순서는 피험자 간 요인이며, 시나리오와 부수적-결과는 피험자 내 요인이다. 참여자는 피험자 간 요인의 두 수준 중 한 수준에 무선적으로 배정하였다.

결과 및 논의

칭찬/비난 판단(행동에 대한 칭찬 및 비난). 2(질문 순서: 의도적 행동 판단→칭찬/비난 판단 vs. 칭찬/비난 판단→의도적 행동 판단) * 2(시나리오: 전투 vs. 농부) * 2(부수적-결과: 긍정 vs. 부정)의 혼합 변량 분석 결과, 시나리오의 주효과, $F(1, 58) = 6.89, MSE = 1.64, p < .05, \eta^2 = .11$, 및 부수적-결과의 주효과, $F(1, 58) = 58.35, MSE = 2.74, p < .001, \eta^2 = .50$, 질문 순서의 주효과, $F(1, 58) = 6.22, MSE = 2.25, p < .05, \eta^2 = .10$, 가 유의하였다. 부수적-결과와 질문 순서의 상호작용, $F(1, 58) = 3.21, ns$, 시나리오와 질문 순서의 상호작용, $F < 1$, 시나리오와 부수적-결과의 상호작용, $F < 1$, 시나리오, 질문순서, 부수적-결과의 상호작용, $F < 1$, 은 유의하지 않았다. 질문 순서와 다른 변인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 순서 조건을 통합한 칭찬 및 비

표 2. 실험 2에서 시나리오와 부수적-결과에 따른 칭찬/비난 판단의 평균

부수적-결과 \ 시나리오	전투	농부	합계
긍정적	2.72(0.20)	3.08(0.20)	2.90(0.17)
부정적	4.28(0.18)	4.78(0.14)	4.53(0.13)
합계	3.50(0.14)	3.90(0.12)	

() 평균의 표준 오차

난 판단의 평균과 표준오차를 표 2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부정적 부수적-결과에 대해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정도가 긍정적 부수적-결과에 대해서 칭찬을 받아야 하는 정도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의도적 행동 판단. 2(질문 순서: 의도적 행동 판단→칭찬/비난 판단 vs. 칭찬/비난 판단→의도적 행동 판단) * 2(시나리오: 전투 vs. 농부) * 2(부수적-결과: 긍정 vs. 부정)의 혼합 변량 분석 결과 부수적-결과의 주효과, $F(1, 58) = 71.84$, $MSE = 2.99$, $p < .001$, $\eta_p^2 = .55$, 와 부수적-결과와 시나리오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F(1, 58) = 4.56$, $MSE = 1.53$, $p < .05$, $\eta_p^2 = .073$. 유의한 상호작용에 대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농부 시나리오와 전투 시나리오 모두에서 부정적 부수적-결과에서의 의도적 행동 판단이 긍정적 부수적-결과에서의 의도적 행동 판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농부 시나리오, $t(59) = 8.26$, $p < .001$, $SE = .27$, Cohen's $d = 1.51$, 전투 시나리오, $t(59) = 5.60$, $p < .001$, $SE = .28$, Cohen's $d = 1.10$. 질문 순서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

며, 두 순서 조건을 통합하여 표 3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시나리오의 주효과, $F < 1$, 질문 순서의 주효과, $F < 1$, 시나리오와 질문 순서의 상호작용, $F < 1$, 부수적-결과와 순서의 상호작용, $F < 1$, 시나리오, 질문 순서, 부수적-결과의 상호작용, $F < 1$, 은 유의하지 않았다.

실험 2의 참여자는 부수적-결과가 부정적일 때 그 결과를 일으킨 행동은 의도적이었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부수적-결과가 긍정적일 때 결과를 일으킨 행동은 비의도적이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Knobe(2003a, 2003b)과 이현진(2009) 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농부 시나리오에서 부수적-결과 간 의도적 행동 판단치의 차이가 전투 시나리오에서의 차이보다 더 컸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Knobe, 2003a, 2003b)와 일치하지 않는다.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두 시나리오가 서로 다른 인지 및 정서적 반응을 일으켰으며, 이러한 반응의 차이가 의도적 행동 판단의 차이로 나타났을 가능성이다(Green & Haidt, 2002; Green, Sommerville, Nystrom, Darley, & Cohen, 2001; Waldmann & Dieterich, 2007). Green과 그의 동료들(2001)은 도덕 딜레마의 내용이 사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인지, 죽음을 야기

표 3. 실험 2에서 시나리오와 부수적-결과에 따른 의도적 행동 판단의 평균

부수적-효과 \ 시나리오	전투	농부	합계
긍정적	2.17(0.19)	1.92(0.18)	2.04(0.16)
부정적	3.71(0.17)	4.15(0.20)	3.93(0.14)
합계	2.94(0.12)	3.03(0.13)	

() 평균의 표준 오차

하는 것인지 등에 따라 의무론적 도덕 판단, 공리주의적 도덕 판단 및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 달라짐을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죽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보다 현저한 반응이 관찰되었다. 이 설명에 따르면 병사들이 전사한 전투 시나리오에서 부수적-결과의 차이에 따른 의도적 행동 판단의 차이가 더 커야 한다. 실험 2의 결과는 이와 부합하지 않는다. 또 다른 가능성은 군인의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결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반면, CEO의 경우 사익을 위한 결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행위를 시행한 목표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의도적 행동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시나리오에 대한 인지 및 정서적 반응에 대한 보다 면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실험 2는 의도적 행동 판단과 결과의 도덕적 성격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결과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의도적 행동 판단의 질문 순서를 조작하였다. 하지만 기대한 순서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결과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명시적 질문 이전에 발생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을 훼손하거나 병사들을 사선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인지하는 순간 결과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일어

났을 수 있다. Haidt(2001)는 결과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숙고적인 면도 있지만 자동적, 즉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Green과 그의 동료들(2010)은 도덕적 판단의 즉각적 정서 과정의 뇌-과학적 증거들을 보고하고 있다.

실험 1과 실험 2의 결과는 한국인의 경우 의도 판단과 의도적 행동 판단이 일치함을 보여 준다. 도덕적인 결과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 한국인은 의도적인 행동이며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비의도적이며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Knobe(2003a, 2003b, 2004)의 부수적-결과 효과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실험 3

실험 1과 2의 결과는 서론에서 언급한 ‘보다 강력한 부수적-결과 효과’ 가설뿐만 아니라 ‘수정된 마음-행동 일관성’ 가설로 설명이 가능하다. 실험 3은 이 두 가설을 구분할 수 있는 실험 상황을 구성하여 두 가설의 예측을 비교하였다.

실험 3은 행동 결과의 도덕적 성격이 의도

외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실험 3은 행위자가 부수적-결과를 인지하고 있었는지(신념), 부수적-결과를 원했는지(욕망), 그리고 부수적-결과를 목표로 했는지(목표)에 대해 살펴보았다.

‘보다 강력한 부수적-결과 효과’ 가설에 따르면 결과의 도덕적 성격은 의도의 선행 요인으로 신념 및 욕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그룹 2A). 반면 ‘수정된 마음-행동 일관성’ 가설은 도덕적 바람직성이 신념, 욕망, 또는 두 구성 개념 모두의 선행 요인이라고 가정한다(그룹 2B). 따라서 ‘수정된 마음-행동 일관성’ 가설에 따르면 결과의 도덕적 성격은 신념 및 욕망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실험 2에서 관찰된 시나리오의 주효과에 대한 가능한 설명으로 행위의 목표에 대한 지각이 다를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이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행위자의 목표에 대한 판단 역시 함께 실시하였다. 또한 최근 Beebe와 Buckwalter(2010) 그리고 Guglielmo와 Malle(2010)는 ‘목표’ 역시 의도의 선행 개념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요약하면, 실험 3은 부수적-결과에 따라 신념, 욕망, 목표 판단에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았다.

방 법

실험 참여자 및 실험 설계. 경상대학교에 재학 중인 180명의 대학생이 실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과제(신념 vs. 욕망 vs. 목표)와 부수적-결과(긍정 vs. 부정)는 피험자간 요인, 시나리오(전투 vs. 농부)는 피험자 내 요인으로 설계하였다. 각 피험자 간 조건에 30명씩 무

선적으로 배정되었다.

절차. 신념 조건에서 실험 참여자는 각 시나리오를 읽고, 행위자(농부, 중위)가 긍정적/부정적 부수적-결과가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는지 평정하였다. 욕망 조건의 실험 참여자는 행위자가 긍정적/부정적 부수적-결과를 원했는지 평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목표 조건에서는 행위자가 긍정적/부정적 부수적-결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행동을 취했는지 평정하였다. 모든 질문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평정은 7점 척도 상에서 이루어졌다.

결과 및 논의

과제, 부수적-결과, 시나리오에 따른 평정치는 표 4에 제시하였다. 각 과제(신념, 욕망, 목표)에 대해 2(시나리오: 전투 vs. 농부) * 2(부수적-결과: 긍정 vs. 부정)의 혼합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조건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실험 3의 결과는 행동 결과의 도덕적 성격은 의도를 제외한 행위자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보다 강력한 부수적-결과 효과’ 가설의 예측과 부합한다. 실험 3의 참여자는 긍정적 부수적-결과 조건과 부정적 부수적-결과 조건 모두에서 행위자(사장)는 부수적-결과가 일어날 것임을 예측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두 조건 모두에서 실험 참여자는 행위자(사장)는 부수적-결과를 원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험 참여자는 행위자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결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표 4. 실험 2-2에서 시나리오와 부수적-결과에 따른 신념, 욕망, 목표 판단의 평균

부수적-효과 \ 시나리오	전투	농부	합계
A. 신념			
긍정적	4.37(0.22)	4.57(0.21)	4.47(0.18)
부정적	4.23(0.21)	4.47(0.23)	4.35(0.19)
합계	4.30(0.18)	4.52(0.19)	
B. 욕망			
긍정적	2.27(0.21)	2.53(0.30)	2.40(0.22)
부정적	2.10(0.29)	2.37(0.28)	2.23(0.22)
합계	2.18(0.22)	2.45(0.22)	
C. 목표			
긍정적	1.80(0.26)	2.10(0.28)	1.95(0.23)
부정적	1.90(0.23)	1.97(0.26)	1.93(0.23)
합계	1.85(0.23)	2.03(0.23)	

() : 평균의 표준오차

결과의 도덕적 성격이 의도 판단에 영향을 주었던 실험 1의 결과에 비추어봤을 때, 의도의 하위 구성개념인 ‘신념’과 ‘욕망’에서 결과의 도덕적 성격 효과가 관찰되지 않은 실험 3의 결과는 ‘전통적 마음-행동 일관성’ 가설(그림 1A)의 결과를 지지하지 않는다. 또한 결과의 도덕적 성격은 의도적 행동의 선행 요인이지만 의도의 선행 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수적-결과 효과’ 가설(그림 1B)의 예측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실험 3의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은 비록 신념과 욕망에 대한 판단이 행동 결과의 도덕적 성격에 영향을 받았지만, 행위자의 심리적 상태가 동일하게 기술되었기

때문에 차이를 보고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와 유사한 시나리오를 제시했음에도 행동 결과의 도덕적 성격이 행위자의 지식과 바람에 영향을 주었던 연구가 있음에 비추어 설득력은 떨어진다(Beebe & Buckwalter, 2010; Guglielmo & Malle, 2010). 또한 이 설명은 실험 1, 2와는 다르게 실험 3은 부수적-결과를 피험자 간 요인으로 설계하여 대조 효과를 제거하였다는 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종합 논의

실험 1은 결과의 도덕적 성격이 의도 판단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Knobe(2004)의 주장을 검증하였다. Knobe(2004)의 예측과는 다르게 한국인들은 결과의 도덕적 성격에 따라 행위자의 의도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 실험 참여자는 본인의 행동이 일으킬 결과가 도덕적인지 아닌지에 대해 상관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행위자의 의도에 대해 판단하였다. 비록 행위자가 결과의 도덕적 함의에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결과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위자가 결과를 일으킬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반면, 행동 결과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경우에는 행위자가 결과를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실험 2는 실험 1과 동일한 시나리오를 제시한 후 행위자의 행동이 의도적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았다. 실험 2의 결과는 실험 1과 동일하다.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비의도적 행동이라고 판단하였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의도적으로 그 결과를 일으켰다고 판단하였다.

실험 1과 실험 2의 결과는 부수적-결과 효과(Knobe, 2003a, 2003b, 2004), 의도적 행동에 대한 상식적 모델(Malle & Knobe(1997) 및 마음-행동 일관성 가설(Gopnik & Wellman, 1992; Wellman, 1990)로 설명할 수 없다. 결과의 도덕적 성격이 의도적 행동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면에서 부수적-결과 효과로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도 판단과 의도적 행동 판단이 일관적인 실험 1과 실험 2의 결과는 의도 판단과 의도적 행동 판단의 비대칭성을 주장하는 부수적-결과 효과와 부합하지 않는다.

반면 의도 판단과 의도적 행동 판단이 일관

적인 실험 1과 실험 2의 결과는 의도적 행동에 대한 상식적 모델(Malle & Knobe, 1997) 및 마음-행동 일관성 가설(Gopnik & Wellman, 1992; Wellman, 1990)의 예측과 부합한다. 하지만 의도적 행동에 대한 상식적 모델과 마음-행동 일관성 가설은 신념과 욕망에 대한 기술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의 도덕적 성격이 의도 판단 및 의도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실험 1과 실험 2 각각의 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

실험 3은 한국인이 부수적-결과 효과를 보이지 않은 실험 1과 2의 결과에 대한 두 가설, ‘보다 강력한 부수적-효과’ 가설 및 ‘수정된 마음-행동 일관성’ 가설을 검증하였다. ‘보다 강력한 부수적 효과’ 가설은 행위자를 비난 또는 칭찬하기 위한 평가적 요소가 행위에 대한 판단을 넘어 마음에 대한 판단, 특히 의도에 대한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결과적으로 결과의 바람직성이 의도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반면 ‘수정된 마음-행동 일관성’ 가설은 결과의 도덕적 성격이 의도의 선행 요인인 신념, 욕망, 또는 두 구성 개념 모두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차별적 의도 판단을 일으킨다고 가정한다. 실험 3에서 참여자들은 신념과 욕망에 대한 판단에 결과의 도덕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보다 강력한 부수적-효과’ 가설과 부합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인의 도덕 판단, 특히 의도 판단에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왜 한국인은 서양인과는 달리 의도 판단에 결과의 도덕적 성격을 고려하는가? Knobe(2003a, 2003b, 2004)은 집단에 도움이 되는 행동에 대한 칭찬과 집단에 피해를 입히는 행동에 대한

비난은 집단의 유지에 핵심적이며, 진화적으로 의도적 행동 판단에 이러한 요소가 반영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Knobe(2003a, 2003b, 2004)의 설명에 근거하여, 한국인의 경우 앞서 언급한 진화적 요소가 의도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한국인은 조선 시대 이후 전통적 유교 사상에 근거한 인성론 및 도덕론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 유교사상의 경우 행동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김경호, 2007). 김경호(2007)는 이이의 주자학 연구를 통해 한국인의 도덕성은 진실한 마음의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였다. 비록 유교적 문화가 도덕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없지만, 이러한 유교적 도덕성에 대한 학습이 Knobe(2003a, 2003b, 2004)의 시나리오에 표상의 문화차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서양의 도덕판과는 달리 유교적 도덕관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환경을 훼손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유지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비난받아야 하는 일이다. 이러한 설명은 환경이 훼손되는 것에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은 환경 훼손을 허용하는 것이고, 환경 훼손 허용이 환경 훼손을 원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제시한 ‘수정된 마음-행동 일관성’ 가설과 다르다. 유교적 도덕관에 따르면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지만 거부하지 않은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야 한다. 우리는 한국인의 의도 판단에 전술한 마음에 대한 평가적 요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제안하였다.

다른 가능한 설명으로 비도덕적인 결과가

일으키는 즉각적 정서적 반응으로 정보 처리 과정이 편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Haidt, 2001). Alike(2000)의 귀책 통제 모형(Culpable control model)에 따르면 결과의 심각성에 따라 행위자의 의도를 추론하는 등의 정보 처리 과정이 달라진다. 부정적인 결과일수록 다양한 관련 정보를 객관적으로 탐색 처리하는 합리적인 정보 처리보다는 결과에 부합하는 정보를 찾는 정서적 즉각적 처리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누군가 자동차로 아이를 치어 죽였다면 사람들은 도로 상황, 사건 당시의 기상 상태 같은 상황의 제약 등을 고려하기 보다는 즉각적으로 운전자에게 비난을 가한다(Lagnado & Shannon, 2008). 환경을 훼손한 경영자나 병사들을 사지로 모는 지휘관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행위자를 비난하기 위해 편향적인 의도 판단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설명은 결과의 도덕적 성격은 바람과 지식, 목표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실험 3의 결과를 해석할 수 없다.

또 다른 가능성은 한국어 ‘의도’가 미국의 intention에 대응되지 않을 가능성이다. Intention이 두 개의 하위 요소, 욕망(desire)과 신념(belief)로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은 서양 철학사에서 Aristotle(1892)와 Hume(1978)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합리적 선택 모형 등의 주요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Malle & Knobe, 1997). Malle(2006)는 이 외에 도덕적 잘못(moral badness)을 의도적 행동의 하위 구성 개념으로 추가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서구의 의도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한국인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김도희(2011)는 한국어

‘의도’에 욕망 및 신념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 주었다. 부수적-결과의 도덕적 성격에 따라 행위자에 대해 신념과 욕망에 대한 판단이 다르지 않았음에도 의도 판단은 다르게 나온 본 실험 3의 결과는 적어도 한국인이 생각하는 ‘의도’는 이 두 요소 외에 추가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도덕한 사건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미국인보다 외부 귀인 보다는 내부 귀인을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들은 서구인에 비해 근본적 귀인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낮다는 Nisbett, Peng, Choi와 Norenzayan (2001)의 제안과 상충된다. 본 연구는 귀인 방식의 문화차가 모든 사건에 적용되기 보다는 결과의 도덕적 성격 또는 파장 등에 의해 차별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결과는 다양한 사회적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특히 비도덕적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한국인은 다각적인 정보 탐색을 통해 객관적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행위자의 내적인 상태에 그 원인을 돌림으로써 피의자에게 많은 비난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건을 보도하는 대중 매체 역시 동일한 편향을 보임으로써 사건의 성격을 호도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민 참여 재판의 배심원의 평결 과정에 있어 피의자의 행위 의도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임을 감안하면, 행위자의 의도에 대한 독립적 고찰 보다는 부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편향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를 종합하면 한국인들은 결과가 나쁘면 행위자의 의도도 나쁘다고 판단하는 반면, 결과가 긍정적인 상황에서 행위자의 의도는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부정적 결과에 있어 의도와 행동의 의도성의 일관성은 부수적-결과 효과가 문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knobe(2010)의 주장과 배치된다. 이러한 의도 판단과 의도적 행동 판단의 일관성이 유교적 가치관에 따른 도덕 판단에 의해 일어났을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 외에 다양한 관점에서 의도 판단과 의도적 행동 판단의 일관성을 설명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의도 판단에 대한 반복 검증을 넘은 최초의 경험적 연구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 향후 앞서 언급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결과가 곧 행위자의 의도로 연결되는 편향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찰 역시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호 (2007) 진정성 회복을 위한 수양론의 두 유형. *유교사상문화연구*, 28, 101-124.
- 김도희 (2011). 도덕 판단에서의 이중과정: 인과 판단과 비난 판단, 행위 판단과 행위자 판단의 차이.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성규 (2005). *공자, 〈論語〉*.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이현진 (2009) 마음 이론과 도덕 판단에서 나타난 부작용 효과. *한국 심리학회지: 발달*, 22, 69-83.
- Adams, F. (1997). Cognitive trying. In *Contemporary*

- Action Theory*, vol. 1, eds. G. Holmström-Hintikka and R. Tuomela, 287-314. Dordrecht: Kluwer.
- Adams, F. and A. Steadman (2004). Intentional action in ordinary language: core concept or pragmatic understanding? *Analysis* 64(2), 173-181.
- Alicke, M. D. (2000). Culpable control and the psychology of blame. *Psychological Bulletin*. 126(4), 556-574.
- Astington, J. W. (1999). *The language of intention: Three ways of doing it*.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Astington, J. W. (2001). The paradox of intention: Assessing children's metarepresentational understanding. *Intentions and intentionality: Foundations of social cognition*, 85-103.
- Chiu Loke, I., Heyman, G. D., Itakura, S., Toriyama, R., & Lee, K. (2014). Japanese and American children's moral evaluations of reporting on transgress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50(5), 1520-1531.
- Gold, N., Colman, A. M., & Pulford, B. D. (2014). Cultural differences in responses to real-life and hypothetical trolley problems.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9, 65-76.
- Gopnik, A., & Wellman, H. M. (1992). Why the child's theory of mind really is a theory. *Mind & Language*, 7, 145-171.
- Greene, J. & J. Haidt (2002). How (and where) does moral judgment work?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6(12), 517-523.
- Greene, J. D., Sommerville, R. B., Nystrom, L. E., Darley, J. M., & Cohen, J. D. (2001). An fMRI investigation of emotional engagement in moral judgment, *Science*, 293(5537), 2105-2108.
- Haidt, J. (2001). The emotional dog and its rational tail: A social intuitionist approach to moral judgment. *Psychological Review*, 108, 814-834.
- Han, H., Glover, G. H., & Jeong, C. (2014). Cultural influences on the neural correlate of moral decision making processes. *Behavioural brain research*, 259, 215-228.
- Hume, D. (1978). *A treatise of human nature* L. A. Selby-Bigge & P. H. Niddich, (Eds.). New York: Oxford Univ. Press. (Originally published in 1740.)
- Knobe, J. (2003a). Intentional action in folk psychology: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Philosophical Psychology*, 16(2), 309-324.
- Knobe, J. M. (2003b). Intentional Action and Side Effects in Ordinary Language. *Analysis* 63, 190-194.
- Knobe, J. (2004). Intention, intentional action and moral considerations. *Analysis*, 64(2), 181-187.
- Knobe, J. M. and A. Burra (2006). The Folk Concepts of Intention and Intentional Action: A Cross-Cultural Study. *Journal of Cognition and Culture*, 6, 113-132.
- Leslie, A. M., Knobe, J., & Cohen. A. (2006). Acting Intentionally and the Side-Effect Effect. *Psychological Science*, 17, 421-427.
- Knobe, J. (2010). Person as scientist, person as moralist.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33,

- 315-365.
- Lagnado, D. A., & Channon, S. (2008). Judgments of cause and blame: The effects of intentionality and foreseeability. *Cognition*, 108(3), 754-770.
- Malle, B. F. (2006) Intentionality, Morality, and Their Relationship in Human judgment. *Journal of Cognition and Culture*, 6, 87-112.
- Malle, B. F., & Knobe, J. (1997). The folk concept of intentional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3(2), 101-121.
- McCann, H. (1986). Rationality and the range of intention.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10, 191-211
- McCann, H. J. (2005). Intentional action and intending: Recent empirical studies. *Philosophical Psychology*, 18(6), 737-748.
- Sloman, S. A., Fernbach, P. M., & Ewing, S. (2012). A Causal Model of Intentionality Judgment. *Mind & Language*, 27(2), 154-180.
- Waldmann, M. R., & Dieterich, J. H. (2007). Throwing a bomb on a person versus throwing a person on a bomb intervention myopia in moral intuitions. *Psychological science*, 18(3), 247-253.
- Wellman, H. M. (1990). *The child's theory of mind*. Cambridge, MA: Bradford Books.
- 1 차원고접수 : 2014. 08. 21
수정원고접수 : 2014. 12. 26
최종게재결정 : 2014. 12. 26

Outcome Determines Intention: Korean's intention and intentionality judgment

Juhwa Park

Kwangsung Cho

Cognitive Engineering Square, Yonsei University

The side-effect effect (2003a, 2003b, 2004) states that the moral consequence of one's action influences the inference of intentionality of the action but does not influence the judgments of actor's intention. The goal of this research was to validate Knobe and Burra (2006)'s argument that the side-effect effect is culture-universal by investigating whether Korean revealed the effect. In this research, we performed three experiments. In Experiments 1 and 2, we looked at the impact of moral consequences of an action on judgments of the actor's intention (Experiment 1) and on those of intentionality of the action (Experiment 2).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moral consequences of an action mediate both the intention judgments and intentionality judgments. For a morally wrong consequence, Koreans believed that an actor performed an action intentionally but that an actor did not perform an action intentionally for a morally good consequence. Contrary to prediction of the side-effect effect, the same patterns were observed in intention judgments. Experiment 3 tested two alternative hypotheses about Koreans' moral judgments reported in Experiments 1 and 2, 'the modified mind-behavior consistency' hypothesis and 'the stronger side-effect effect' hypothesis. The results suggested that 'the stronger side-effect effect' hypothesis explain Koreans' intention and intentionality judgments better than 'the modified mind-behavior consistency' hypothesis. Possibl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The Knobe effect, moral reasoning, intention, intentional action, cultural difference

부 록

실험 1, 2, 3에 사용한 시나리오

농부 시나리오

[개선 조건]

농부의 부인이 농부에게 한 해 농사를 계획하며 말했다.

“우리는 새로운 농사법을 시도해 볼 예정입니다. 이 농사법은 농산물 생산량 증대를 가져올 거예요. 하지만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자 농부가 말했다. “나는 환경에 관한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그저 올해 많은 생산량을 얻으면 돼요. 새로운 농사법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농사법을 시작하였다. 당연히 주위 환경은 개선되었다.

[훼손 조건]

농부의 부인이 농부에게 한 해 농사를 계획하며 말했다.

“우리는 새로운 농사법을 시도해 볼 예정입니다. 이 농사법은 농산물 생산량 증대를 가져올 거예요. 하지만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자 농부가 말했다. “나는 환경에 관한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그저 올해 많은 생산량을 얻으면 돼요. 새로운 농사법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농사법을 시작하였다. 당연히 주위 환경은 훼손되었다.

전투 시나리오

[생존 조건]

한 중위가 하사와 이야기 중이었다. 중위는 하사에게 명령을 내렸다.

‘자네 분대를 톱슨 언덕 정상으로 보내 톱슨 언덕의 통제권을 확보하도록 하게.’

하사가 말했다.

‘제 분대를 톱슨 언덕 정상으로 보내면 적의 폭격선 밖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병사들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중위가 대답했다. ‘난 우리 병사들에게 일어나는 일에는 관심이 없네. 내가 원하는 것은 톱슨 언덕의 통제권을 갖는 것이네.’

분대는 톱슨 언덕의 정상으로 향했다. 병사들은 폭격 지역 밖으로 이동하였고, 많은 병사들이 생존할 수 있었다.

[전사 조건]

한 중위가 하사와 이야기 중이었다. 중위는 하사에게 명령을 내렸다.

‘자네 분대를 톱슨 언덕 정상으로 보내 톱슨 언덕의 통제권을 확보하도록 하게.’

하사가 말했다.

‘제 분대를 톱슨 언덕 정상으로 보내면 적의 폭격선 안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병사들이 죽을 것입니다’

중위가 대답했다. ‘난 우리 병사들에게 일어나는 일에는 관심이 없네. 내가 원하는 것은 톱슨 언덕의 통제권을 갖는 것이네.’

분대는 톱슨 언덕의 정상으로 향했다. 병사들은 폭격 지역 안으로 이동하였고, 많은 병사들이 죽었다.

실험 1: 의도 판단 질문

농부 시나리오 - 긍정적 결과 조건: 농부는 환경을 개선할 의도가 있었나요?

농부 시나리오 - 부정적 결과 조건: 농부는 환경을 파괴할 의도가 있었나요?

전투 시나리오 - 긍정적 결과 조건: 중위는 병사를 살릴 의도가 있었나요?

전투 시나리오 - 부정적 결과 조건: 중위는 병사를 죽일 의도가 있었나요?

실험 2: 결과 판단 질문

농부 시나리오 - 긍정적 결과 조건: 농부가 새로운 농사법을 시도한 것에 대해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아야 할까요?

농부 시나리오 - 부정적 결과 조건: 농부가 새로운 농사법을 시도한 것에 대해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아야 할까요?

전투 시나리오 - 긍정적 결과 조건: 중위가 분대원을 톱슨 언덕으로 보낸 것에 대해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아야 할까요?

전투 시나리오 - 부정적 결과 조건: 중위가 분대원을 톱슨 언덕으로 보낸 것에 대해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아야 할까요?

실험 2: 의도적 행동 판단

농부 시나리오 - 긍정적 결과 조건: 농부는 의도적으로 환경을 개선하였습니까?

농부 시나리오 - 부정적 결과 조건: 농부는 의도적으로 환경을 파괴하였습니까?

전투 시나리오 - 긍정적 결과 조건: 중위는 의도적으로 병사를 구조되게 하였습니까?

전투 시나리오 - 부정적 결과 조건: 중위는 의도적으로 병사를 죽게 하였습니까?

실험 3: 신념 판단 질문

농부 시나리오 - 긍정적 결과 조건: 농부는 새로운 농사법이 환경을 개선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농부 시나리오 - 부정적 결과 조건: 농부는 새로운 농사법이 환경을 파괴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전투 시나리오 - 긍정적 결과 조건: 중위는 병사들이 구조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전투 시나리오 - 부정적 결과 조건: 중위는 병사들이 전사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실험 3: 욕망 판단 질문

농부 시나리오 - 긍정적 결과 조건: 농부는 환경이 개선되기를 원했습니까?

농부 시나리오 - 부정적 결과 조건: 농부는 환경이 파괴되기를 원했습니까?

전투 시나리오 - 긍정적 결과 조건: 중위는 병사들이 구조되기를 원했습니까?

전투 시나리오 - 부정적 결과 조건: 중위는 병사들이 전사하기를 원했습니까?

실험 3: 목표 판단 질문

농부 시나리오 - 긍정적 결과 조건: 농부는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환경을 파괴하였습니까?

농부 시나리오 - 부정적 결과 조건: 농부는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환경을 개선하였습니까?

전투 시나리오 - 긍정적 결과 조건: 중위는 톱슨 언덕을 점령하기 위해 병사들을 구조되게 하였습니까?

전투 시나리오 - 부정적 결과 조건: 중위는 톱슨 언덕을 점령하기 위해 병사들을 죽게 하였습니까?